

李大統領, '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론통합 숙제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돌파' 스타일 민주, 정치인 실명 없이 '민생사면' 강조 혁신 "앞장서 검찰개혁 등 5대개혁 완수" 국힘 "조국·윤미향 사면 국론분열 씨앗"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애초 12일로 예상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이재명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정의 배경에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논란이라면 일찍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렸으리라는 분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 대상으로 제외할 것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여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정당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제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국 전 대표 등 구체적인 정치인의 이름은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

은 깊은 속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들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는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라며 "빛의 혁명인 정권 교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 장관은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했고, 윤 전 의원은 아직도 억지 판결이라며 횡령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에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의회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김문수 국회의원, 사회1·2분과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정과제 반영 건의

도의회 의대특위, 국정기획특위 방문

열악한 의료현실 설명 당위성 강조

전남도의회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특위)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립의대 설립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의대특위는 이날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2분과 분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

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의대특위 방문단에는 공동위원장인 신민호·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신·최정훈·진호건 의원이 함께했으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신민호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통합의대 설립을 준비 중인 지금이야말로 국립의대 설립의 최적의 시점인 만

큼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전남도 국립의대는 도민의 헌법상 건강권 실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의대특위는 신민호(순천6)·최선국(목포1)·나광국(무안2)·박현숙(비례)·김화신(비례)·손남일(영암2)·최정훈(목포4)·정영균(순천1)·임형석(광양)·진호건(곡성)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재정 기자

김원이, 'AI산업·경제안보' 법안 대표발의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은 1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공약을 이행하는 법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공약을 이행하는 법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의 제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구현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를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행안부, 새 정부 국정철학 이해 못해"

서삼석 "농어민 소비쿠폰 불편 지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특별히 농어민에게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읍·면 지역을 비롯한 사용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률이 95.2%로 지급액이 8조7천222억원에 달하며 사용자에 대해 등록된 점포 외에도 시장·군수·판단에 따라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애초에 지급을 위한 사전설계 부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하지만 행안부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사용자 기준 설계로 농어촌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라는 말이 어불성설이 돼버렸다"며 "특정 군의 경우 현재 14개 읍·면에 과일 상점이 전무해 4시간가량 여행객으로 이동 후 또 버스로 환승해야만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행안부가 새 정부 국정철학을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는 인상이 든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사업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